



40여국 1만여명 참가... EDRM·검색솔루션·e북 등 최대이슈

유럽의 각 분야별 정보 서비스 현황과 새로운 관련 솔루션 및 시장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런던 온라인 인포메이션 2004' 전시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동안 런던 올림픽아 전시장 그랜드홀과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230여개 업체와 1만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클 권경희 기자

정 보콘텐츠, 전자출판, 웹콘텐츠, 뉴미디어, 지식관리, DL 솔루션, e비즈니스 등의 산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런던 온라인 인포메이션 2004' 전시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런던 올림픽아 전시장 그랜드홀과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콘텐츠 관련 전시회인 런던 온라인 인포메이션 전시회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포함해 총 23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1만여명의 정보산업 전문가들이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관했다.

지리·정보·법률 등 정보활용 다양 제시

이번 행사의 참여업체는 과학, 기술 및 의학정보 분야와 콘텐츠 관리 분야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 국내에는 이 같은 행사에서 게임업체들의 편중된 참여가 많은 것과는 달리 지리 정보, 법률, 과학, 의료, 화학 등 인간의 실생활에 접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해

정보 활용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흘동안 펼쳐진 무료교육은 유럽의 IT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가 열기가 뜨거웠다. 각 IT업체 및 기관들이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와 전시 및 교육을 펼친 이번 행사는 전문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전문가의 역할, 콘텐츠 매니지먼트 관련 솔루션, 모바일 관련 솔루션 등 정보서비스를 세분화·전문화해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정보 콘텐츠와 정보관리 솔루션이라는 큰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심도 깊은 세미나도 이뤄졌다. 정보콘텐츠 영역에서는 정보기술 및 경력개발 관련 강연·정보콘텐츠 세미나·콘텐츠 사례연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정보관리 솔루션 영역에서는 콘텐츠관리·기업문서 및 기록관리·기업검색·기술사례연구·전자출판 솔루션 등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가 이뤄졌다.

특히 구글(Google), 브리티시 라이브러리(British Library), 오렌지(Orange), KPMG,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등의 우수 기업



및 기관이 정보콘텐츠 기술 및 정보관리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112개의 세미나를 실시해 유럽의 온라인 사업의 현주소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구글의 초기 자문관이자 'Designing Web Usability(웹 유저빌리티: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가 성공한다)'로 베스트셀러 저자인 자콥 닐슨(Jakob Nielsen)이 강의를 맡아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컨퍼런스에는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오스트랄라시아, 극동 및 아프리카, 칠레 등 40개국에서 9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DRM·기업용 검색 솔루션·e북 주요이슈

행사 이튿날인 12월 1일에는 런던 로얄 랭커스터 호텔에서 '국제 정보화산업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2004년 한해동안 콘텐츠관리나 데이터베이스 부문 등에서 프로젝트나 수출, 기술개발 등을 탁월하게 수행한 글로벌 기업의 프로젝트팀에게 수여하는 이 시상식은 브리티시 라이브리리의 '터닝 더 페이지(Turning the Pages)' 프로젝트와 구글, 기업 검색 플랫폼인 FAST의 'ESP', BOOTS의 PIC(전력신통신장비) 인터넷 구축, 노샘프턴셔주 천문대의 포털사이트 등에 참여한 팀이 국제 인포메이션산업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보관리 분야인 EDRM(전자문서기록관리)과 기

업용 검색 솔루션, e북 솔루션 등 세가지 솔루션에 대한 미래 제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기업의 투명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세계 여러 관련 기관들이 각종 법안들을 제정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행정적, 규제적, 법률적 규정에 따라 전자 기록을 경제적으로 보관 또는 폐기하기 위한 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인 ERM(전자기록관리)과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EDM(전자문서관리)을 모두 아우르는 EDRM(Electronic Documents Records Management) 제품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구글이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들에 대한 검색서비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구글은 미시간대학 도서관의 서적 전체를 스캐닝해 웹 검색 서비스에 나서는 한편 스탠퍼드대와 옥스퍼드대, 하버드 대학, 뉴욕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들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도 구글의 기업용 검색 솔루션을 갖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구글 기업용 영업본부장인 데이브 지루어드는 "구글 서치 어플라이언스"는 전세계 28개국어로 구글의 인터넷과 웹페이지를 공유해 빠르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지원한다"며 "유럽 기업들도 '구글 서치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사용과 검색결과에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VN 'Inview' 등 각기업 앞 다뤄 신제품 발표

유럽 정보솔루션업체 벨기에 뷰로우반 다이크(Bureau Van Dijk)는 글로벌자산 분석 제품인 'Inview'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영국 및 아일랜드 기업인 FAME와 월드와이드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오시리스(Osiris)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업재무 및 M&A, 주식리서치, 투자포트폴리오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로 비전문가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뷰로우반 다이크의 앵거스 데이비스 국제영업팀장은 "Inview는 기존의 제품 범위를 이상적으로 보완해준다. 사용자들은 상장 기업 데이터베이스인 '오시리스'에서 매우 구체적인 기업 보고서를 링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객들은 즉석에서 포트폴리오를 비교하고 현재 특정 기업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펀드를 파악하며, 투자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투자가 위임되는 펀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ECM 공급 업체인 레드도트(REDDOT)는 확장된 콘텐츠 관리 시스템(XCMS)을 발표, 조직 전반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거쳐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는 웹 콘텐츠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업체가 자신 있게 내놓은 이 제품은 그래픽 기능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자신했다.

월터스 클루버는 보건 및 제약 부문 정보 전문가들을 위한 'Books@Ovid' 서비스를 발표,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 간호 및 제약 서적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재설계된 인터페이스의 신기능을 통해 참조 정보를 일상 워크플로우로 보다 원활하게 통합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사서들 뿐 아니라 보건 조직의 임상 관리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월터스 클루버는 밝혔다.

월터스 클루버는 대표적인 다국적 정보 서비스 업체로 핵심 사업의 시장은 보건, 세무, 회계, 법인, 금융 서비스, 법률 및 규제, 교육 부문에 걸쳐 분포돼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은 34억 유로이고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8,75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월터스 클루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다.

e러닝 솔루션 기업인 에메랄드는 온라인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에메랄드 관리 엑스트라 인터페이스를 발표했다. 에메랄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터페이스 시연과 함께 런던 전시실에서 특별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에메랄드 매니지먼트 엑스트라는 강사, 학생, 조사원 및 정보 전문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에메랄드는 전략과 변화 관리 및 국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니체 관리 저널을 출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인 스크퍼스, 엘세비어, 컴패니즈 하우스, 디지털자산관리 전문 기업인 오프스텝, 엑스페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데이터전문업체인 콤포스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영국을 찾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기술력을 자랑했다. ☺